

#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정 필 모\*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
| II.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  | V. 결 론           |
| III. AACR2와 MARC에 대한 전망 | Abstract         |

## I. 서 론

도서관목록의 자동화기술은 벌써 30년 이상 발전되어왔고, 그 동안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대단히 큰 변혁이 있었다. 1960년대에 시작된 목록의 자동화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컴퓨터기술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1980년대부터 목록의 데이터를 자관 내에서나 자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온라인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서관목록의 자동화가 카드목록의 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법에서 온라인환경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편목규칙으로 인정받아왔던 AACR2와 이를 자동화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MARC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근년에는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에 대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보문화연구소 이사장

한 획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갱신을 위한 주장을 문헌을 통해서 신중히 살펴보고, 끝으로 온라인환경에 따른 편목법의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특히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II.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

현재 통용되고 있는 AACR2나 AACR2R, KORMARC기술규칙이나 KCR3, 그리고 모든 MARC까지도 목록의 자동화를 위한 규칙이다. 그러나 이들 규칙들은 온라인목록의 환경이 현재와 같이 일반화되기 이전 이른바 제1세대의 온라인목록을 위한 것이다. Rahmatollah Fattahi가 말한바와 같이 “사실상 제1세대의 온라인목록은 거의 컴퓨터화된 카드목록이었으며, (온라인목록의) 요구에 따라 개발된 적합한 규칙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하였다.”<sup>1)</sup> 그리하여 근년에는 AACR2R이나 MARC에 대해서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axwell은 ‘AACR2R은 수작업 시스템에 기초를 둔 것이지 온라인목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이 규칙은 온라인환경에 있어서의 서지레코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2)</sup> 한편 Fattahi는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여러 편목전문가들이 AACR에서 당면하는 난점은 온라인목록의 구조, 특성 및 성능이 그 이전의 카드목록과 상당히 다른데도 그

1) Rahmatollah Fattahi.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Haworth Press, Vol. 20(2) 1995. p. 27

2) Margaret F. Maxwell. *Handbook for AACR2 1988 Revision: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ALA. 1989, p. 181

것이 서로 다른 목록의 포맷(목록카드, COM, OPACs)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sup>3)</sup> Boume은 온라인목록은 12.5cm×7.5cm 카드의 공간제한을 받지 않는데, AACR은 이들 두 가지(즉 공간제한을 받는 카드와 OPAC)를 위해서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저작해서 이것이 온라인목록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또한 Wajenberg는 편목기준의 미래에 관한 논문에서, 온라인목록은 아주 다른 규칙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고, 이“규칙은 카드목록이나 책자목록의 상황에서는 의미가 통하지만 표목에 대한 키워드 접근법을 가진 온라인목록을 위해서는 비생산적이라”<sup>5)</sup>고 AACR2R을 비판하고 있다.

Fattahi는 “MARC는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포맷으로 개발된 것”<sup>6)</sup>으로 온라인환경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Ayres는 “지난 20년동안에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의 큰 발전이 있었고, 한편 온라인목록 서지적레코드의 구조에 있어서 더 융통성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MARC는 아직도 1960년대에 있어서의 서지적 데이터의 순서와 성격을 따르고 있다”<sup>7)</sup>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AACR과 MARC는 온라인환경에 합리적으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3) Fattahi. op. cit. p.30

4) Ross Boume. “MARC : Strait-jacket or Opportunity,” in *AACR, DDC, MARC and Friend: Role of CIG in Bibliographic Control*, ed by Jon Byford, Keith V. Trickey and Susi Woodhouse. London: Library Association, 1993, pp. 77-88

5) Arnold S. Wajenberg. “The Future of Cataloging Standards,” *Illinois Libraries*, 1990, 72(6): pp. 495.

6) Fattahi op. cit. p. 39

7) F. H. Ayres. “Duplicates and Other Manifestations : A New Approach to the Presentation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Journal of Librarianship*. 1990, 22(4) :p. 243

### Ⅲ. AACR2와 MARC에 대한 전망

AACR의 미래에 관해서 Intner는 정보매체와 정보기술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보의 생산과 전달의 기술에 있어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편목규칙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규칙들이 적용될 자료에 적절해야 하기 때문에 AACR의 신판, 즉 AACR3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sup>8)</sup> 또한 Smiraglia는 “전반적으로는 서지통정, 특수한 면에서는 목록기술법, 그리고 AACR도 기록된 지식의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유지되도록 변경되어야만 한다”<sup>9)</sup>고 말하고 있다.

Boll은 AACR의 신판에 대한 아이디어로서 두 질의 규칙으로 된 이른바 “AACR3”이라고 하는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즉 하나는 지성적, 판단적 및 서지적인 편목의 측면의 규칙이고, 또 하나는 미세하고 선택적인 컴퓨터의 요구사항이나 혹은 조작하는 관례를 열거하는 규칙이다.<sup>10)</sup> 다시 말하면 Boll이 말하는 “AACR3”은 AACR2와 MARC를 갱신해서 이들을 모두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Wajenberg는 미래의 환경은 아주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온라인목록은 편목규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한다고 지적하고,<sup>11)</sup> AACR2R의 미래에 관해서 “온라인목록을 위한 규칙은 결국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대한 규칙에서는 대단히 많은 급진적인 변화를 강요할 것<sup>12)</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Wajenberg는 이 규칙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는 이 규칙 중의 특정한

8) Sheila S. Intner. “The Case for AACR3,” *Technicalities*. 1988, 8(4) : p. 7

9) Richard P. Smiraglia. ed. *The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Chicago, ALA. 1992, p. xi

10) John J. Boll. “The Future of AACR2.”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1990, 12(1): pp. 3-34

11) Wajenberg. op. cit. p. 103

12) Ibid. p. 495

장(章)에 대한 완전한 재고를 요한다고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대한 장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는 이 규칙에서 표목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들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Brunt는 목록생산기술이 크게 변했고, 따라서 전자목록이 서지적 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 발전될 것이므로, 목록기술법을 다루는 이 규칙은 재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AACR2에 대한 필요한 변경에 관해서 Brunt는 이 규칙의 재 설계는 온라인목록의 특성과 성능, 특히 탐색과 검색성능에 기초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Brunt도 AACR2의 갱신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Wajenberg나 Tillett와는 대조적으로 Tucker는 AACR2R에 대해서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저록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서지적기술을 위한 규칙에서 약간 조정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sup>14)</sup> 이와 같이 Tucker는 AACR2R의 갱신에 대해서 전반에 걸친 주요한 변경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장 신빙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arpenter는 “목록기술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제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개념적 혹은 경험적 연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sup>15)</sup>고 믿고 있다.

13) Rodney M. Brunt. “The Code and the Catalogue: A Return to Compatibility,” *Library Review*. 1992, 41(3) : pp. 21-32

14) Ben R. Tucker. “Interpretation of 1988 Revision,” in *The Origins, Content,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ited by Richard P. Smiraglia. Chicago, ALA. 1992, p. 41

15) Michael Carpenter. “The Narrow Rugged, Uninteresting Path Finally Becomes Interesting: A Review of a Work in Descriptive Cataloging in 1991 with Trail Marks for Further Research,”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1992, 36(3), p. 291

MARC에 대한 전망은 AACR에 대한 미래의 전망에 비하여 더 명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Weihls와 Howarth는 MARC 레코드를 기초로한 시스템에 대한 AACR2R의 규칙개정의 영향을 조사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위해서는 코딩, 레코드와 필드의 길이, 및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sup>16)</sup> 그러나 이들은 코딩, 레코드와 필드의 길이, 및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변경해야 할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Fattahi에 의하면 MARC format과 AACR과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들 두 가지는 서지적 레코드의 코딩과 내용을 함께 다루는 단일의 기준으로 통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sup>17)</sup> 한편 Attig은 이 두 가지 기준틀(tools) 사이의 많은 유사성에 기초해서 “결합된 AACR2-MARC, 즉 서지적 데이터의 내용과 기호표시의 두 가지를 다루는 단일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8)</sup> 또한 Gorman은 AACR2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 MARC도 아주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AACR2와 MARC format을 포함하는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서 이른바 "HYPERMARC"를 편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sup>19)</sup> 이상과 같이 이들은 모두 획기적인 갱신을 주장하고 있으나 갱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16) Jean R. Weihls and Lynne Howarth. *A Brief Guide to AACR1 1988 Revision and Implications for Automated Systems*.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88.

17) Fattahi. op. cit. p. 40

18) John C. Attig.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and Machin-Readable Record Structure: some directions for parallel development," in *The Conceptual Foundations of Descriptive Cataloging*, edited by Elaine Svenonius. Phoenix, Ariz.: Oryx Press: 1989, p. 7

19) Michael Gorman. "Searching for the Green Light: The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Cataloguing Australia*. 1991, 17 (3/4): p. 34

#### IV.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전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tner나 Boll이 제안한 AACR3이나, Attigi이 제안한 AACR2-MARC나 또는 Gorman이 제안한 HYPERMARC는 모두 현재의 AACR2와 MARC를 대폭적으로 갱신하여 하나의 통합된 온라인편목규칙을 편찬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규칙이 가까운 장래에 동시에 편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 Carpenter가 말한 바와 같이 목록기술에 대한 현재의 논의는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그 불만에 대한 원인분석이나 변화에 대한 그들의 제안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sup>20)</sup> 둘째는 이 두 가지의 규칙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자면 그 작업량이 너무나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많은 목록전문가와 컴퓨터전문들의 협동작업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방대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현재의 MARC가 AACR2를 기초로 해서 작성된 것처럼, AACR2R이 완전히 개정된 연후에야 이에 따라서 MARC가 다시 갱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Tucker가 예견한 바와 같이 AACR2R에 대해서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 있어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기본저록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는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며, 서지적기술을 위한 규칙에서 약간 조정될 것<sup>21)</sup>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AACR2나 MARC의 개정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Tucker의 견해를 토대로해서 온라인환경에서의 AACR2와 KCR의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AACR2R

20) Carpenter. *opcit.* p. 291

21) Tucker. *op. cit.* p. 41

의 체계에 따르기 위해서 Tucker가 말한 내용을 그 역순으로 논급하고자 한다.

a. 서지기술부의 문제

Carpenter가 말한 ‘목록기술법에 있어서 현행의 처리방식에 대한 불만’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그것은 분명히 이용자들의 불만이 아니라 목록편찬자들의 불만이고, 또한 현재의 AACR이나 MARC가 과거 약 20년 동안의 온라인카드목록을 기초한 서지기술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것이 2중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온라인목록에서 이용자들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서지기술 양식에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카드목록의 경우보다 훨씬 더 검색하기에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필요에 따라 카드목록 생산양식을 위한 프로그램만을 생략한다면 AACR이나 MARC는 상당히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목록편찬자들의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 입력된 기본데이터를 카드양식으로 印出하면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다 :

<그림 1> 양서 사무용기본카드의 예

- 
- Hardy, Thomas, 1840-1928
- 821.01 Thomas Hardy's poetry / John Powell Ward. — Milton  
H272w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c1993. —  
111p. ; 22cm. — (Open guides to literature).—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 and index. — ISBN 0-335-09991-2
1. Hardy, Thomas, 1840-1928. 2. Ward, John Powell, 1937-.  
3. Title. 4. Open guides to literature. 5) Hardy, Thomas—  
Poetic works. 6) 821.01
-



〈그림 2〉 양서 열람용 기본카드의 예

---

	Hardy, Thomas, 1840-1928
821.01	Thomas Hardy's poetry / John Powell Ward. — Milton
H272w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c1993. —
	111p. ; 22cm. — (Open guides to literature).—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 and index. — ISBN 0-335-09991-2

---

이상의 카드목록의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우선 카드목록은 서지기술사항에 나타난 구두점이 생소하고, 특히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 )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발행사항이나 형태사항 등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온라인목록의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예는 다음의 〈그림 3〉, 〈그림 4〉와 같다.

〈그림 3〉 온라인목록의 이용자 화면(양서)

---

서명저자	Thomas Hardy's poetry / John Powell Ward.
발행사항	Milton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c1993.
형태사항	111p. ; 22cm.
총서주기	Open guides to literature
서지주기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and index.
분류번호	KDC 821.01
	DDC 821.01
청구기호	821.01H272w

---

## 〈그림 4〉 온라인목록의 이용자 화면(동서)

---

서명저자	國際百進分類法研究：人文學分野篇 = International Centesimal Classification(ICC) / 정필모 저
발행사항	서울：中央大學校出版部, 1995
형태사항	xi, 699p. : 삽도 ; 25 cm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ISBN	89-7207-044-0 93020
분류기호	KDC--> 024.4 DDC--> 025.42
청구기호	024.4-정496구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목록의 이용자화면을 보면, 카드목록의 경우와는 다르게 각각의 서지기술사항 앞에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의 구두점이 없이 기술항목마다 기술사항을 표시해주고, 사항마다 문단을 달리 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목록에서는 ISBD의 구두법 중에서 마침표 빈칸 붙임표 빈칸(. —)의 구두점은 불필요한 동시에 기술사항마다 문단을 달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기타의 구두점도 일반적인 관행과는 달리 모든 구두점이 각 사항의 앞에 온다는 개념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두법이나 문단구분법은 저자표시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AACR의 초판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온라인목록의 이용자화면에서 KDC와 DDC 두가지의 분류번호를 표시해준 것은 이용자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카드목록에서 좌측 맨 앞에 기술되었던 청구기호가 온라인목록에서는 맨 뒤에 기술한 것은 아주 합리적인 개선이다. 목록이용자들의 검색의 접근점은 저자나 서명이나 주제명 등으로서, 그 밑에 기술된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야 그 자료가 필요하면 이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청구기호는 자료의

소재위치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므로, 청구기호를 맨 뒤에 기입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상 카드목록에서도 다음의 <그림 5>과 같이했어야 보기에도 자연스럽게 카드의 지면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 카드목록의 개선을 위한 형식

---

Hardy, Thomas, 1840-1928

Thomas Hardy's poetry / John Powell Ward. — Milton Keynes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c1993. — 111p. ; 22cm. — (Open guides to literature).—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 and index.  
— ISBN 0-335-09991-2

1. Hardy, Thomas, 1840-1928. 2. Ward, John Powell, 1937-. 3. Title.  
4. Open guides to literature. 5) Hardy, Thomas—Poetic works.  
6) 821.01

821.01 H272w

---

한편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편목업무에서 사용되는 온라인목록의 **master file**의 화면 중에서 화일명, 입력일자, 발행국명, 자료표시, 언어표시 등 이른바 고정장 필드를 제외한 화면을 보면 다음의 <그림 6>, <그림 7>과 같다 :

## 〈그림 6〉 온라인목록의 master file화면(양서)

---

001 00056515%

005 19960816105531.0%

008 951122s1993 enk b 00100deng %

020 -- \$a0335099912(hbk)%

040 -- \$a211052\$c211052%

082 00 \$a821.01\$b220%

090 -- \$a821.01\$bH272w%

100 10 \$aHardy, Thomas, \$d1840-1928%

245 10 \$aThomas Hardy's poetry /\$cHohn Powell Ward.%

260 0- \$aMilton Keynes ;\$aPhiladelphia :\$bOpen University Press,\$cc1993.%

300 -- \$a111p. ;\$c22cm.%

440 -0 \$aOpen guides to literature%

504 -- \$a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and index.%

600 10 \$aHardy, Thomas--\$xPoetic works%

700 10 \$aWard, John Powell, \$d1937-%

---

## 〈그림 7〉 온라인목록의 master file화면(동서)

---

001 KM0199520150 %

005 19951109112430%

008 951109s1995 ulk AT 000 kor %

020 -- \$a8972070440\$g93020%

0490 - \$1EM1301693\$1EM1301694\$c2%

05201 \$a024.4\$b정496-1%

056 \$a024.4\$b23%

082 -- \$a025.42\$b219%

1001 \$a정필모%

245 10 \$a國際百進分類法研究 :\$c人文學分野篇 = \$xInternational Centesimal Classification /\$d정필모 저%

260 -- \$a서울 :\$b中央大學校出版部 'c1995%

300 -- \$axi , 699 p. ;\$c26cm%

653 -- \$a국제백진분류법연구\$aInternational\$aCentesimal\$aClassification%

9500 \$bW22000&

---

이상에서 보이는 온라인목록의 master file화면은 고정장 필드가 생략된 것인데도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 그리고 이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기록된 순서와 내용이 카드목록에 있어서 기본저록에 기록된 순서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가 있다.

위에서 001부터 049까지는 목록기술사항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들을 생략하고 보면 ; 05201에서 기록된 사항은 청구번호, 056에서 기록된 것은 KDC번호, 082는 DDC번호, 1001은 기본표목, 24510은 서명저자사항, 260은 발행사항, 300은 형태사항, 653은 부출표목지시사항, 9500은 가격표시이다. 이와 같이 MARC의 master file기본구조가 실제로 카드목록의 기본구조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MARC는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포맷으로 개발된 것으로 온라인환경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22)</sup>

그러므로 이를 위에서 예시한 온라인목록의 이용자화면에 부합되도록 하자면 우선 청구기호는 맨 뒤로 가도록 하고, 기본표목은 부출표목지시사항 바로 앞에 오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 하면 이제 온라인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이던 부출표목이던 서지기술사항의 상부 맨 앞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검색의 접근점으로서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기본표목은 그것이 도서기호의 대상이되어 분류번호와 더불어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목지시사항 중에서 맨 앞에 오는 것이 바람직할 뿐이다. 그리고 master file에서도 KDC번호와 DDC번호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서, 다만 이 중에서 자관에서 사용하는 분류번호를 부출표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해석된다.

한편 온라인목록이 카드목록에 비해서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 이외에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된 가장 큰 장점은 Boume이 말한 바와 같이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sup>23)</sup>는 점이다. 그리하여 첫째로 서지기술을 사항별로 별도의 독립된 문단으로 기술할 수 있고, 각각의 문단 사이

22) Fattahi, op. cit. p. 39.

23) Boume. op. cit. p. 78

의 행간도 넓게 할 수 있다.

둘째로 여러 저자의 공저서의 경우 카드목록에서 지면의 제한 때문에 세 사람까지의 공저서에 한해서 서지기술사항에 기입하고,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는 그들 중에서 첫머리에 기재된 한 사람만 기입하고, 나머지 저자는 저자 표시에서 생략하는 동시에 부출표목으로도 내주지 않았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래 공저자나 공편자나 공역자는 세 사람까지만 기입한다는 기준이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는 공동연구나 공동저작이 많아지고, 특히 특정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각 학과의 창립기념논문집이나 주요한 학자들의 회갑, 정년, 또는 古稀기념논문집 등은 단행본으로서 심도 있는 논문들이 수록되는데 이들 저작이나 논문들이 온라인목록에서도 누락되고, 주로 주제별 저널을 대상으로 하는 색인에서도 누락된다면 결국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은 死藏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 사람 이상의 공저서의 경우도 저자명을 모두 자료에 쓰여진 순서대로 서지기술사항에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각 저자의 분담내용이 명확한 경우는 중복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서지기술사항에서는 “누구 등저”로 생략하고, 이를 내용주기사항에서 각 저자명과 그 논제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특히 양서의 경우 종래의 카드목록에서는 카드의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ed.(edition or edited), rev.(revision or revised), comp.(compiled), tr.(translation or translated), ill.(illustration or illustrated) 등 일반적인 통용성이 거의 없는 약자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온라인목록에서는 이러한 스페이스의 제약울 받지 않음으로 이제는 이러한 약자의 사용을 급하고 완전철자를 사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 b. 표목부의 문제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Tucker는 ‘기본표목의 선택을 위한 규칙에서 몇 가지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안했으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아마도 종래에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에 있어서 주

저자가 없을 경우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했던 관행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사람의 공저서나 네 사람의 공저서나 저자로서의 공헌도는 동일한데, 세 사람 이내의 공저서는 저자를 기본표목으로 하고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의 경우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시 말하면, ‘세 사람과 네 사람’이라는 기준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는 것이다.

공저서나 여러 저자의 합저서는 그 저자수가 많고, 주저자나 책임편찬자가 없어도, 모든 저자명 하에서 각각의 저작이 모두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의 경우는 표목지시사항에서 ‘저자명-키워드’로 분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목록에서는 가능한 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기본표목은 그것이 도서기호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분류번호와 함께 자료의 서가배열의 기준이 되며, 따라서 기존의 서가배열체제와 앞으로의 배열체제가 달라져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Tucker는 ‘표목의 형식을 위한 규칙에서는 거의 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특히 개인명표목에 있어서 주로 서양인명의 경우 성(姓)과 이름을 도치하는 그들의 관행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규정이 필요했던 바 이 문제는 이미 AACR2R에 규정된 대로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동양인명의 경우는 본래 姓名순으로 기술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인명표목의 형식문제는 漢字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漢字의 한글표기에서도 李를 “이”와 “리”로, 柳를 “유”와 “류”로 하는 등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표준화해야 하며, 또한 만약 국제적인 통용성을 위해서 표목에 한해서는 알파벳으로 표기해야한다면, 우리 나라는 아직도 한글의 영문표기나 영문의 한글표기가 표준화되지 못하여 그것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할 주요한 과제이다.

한가지 첨언할 것은 KCR3에는 아직도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전혀 마련

되어 있지 않고, 기술부에 있어서도 다만 단행본에 대한 기술규칙만 마련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기타의 법률자료, 음악자료, 古書, 비도서자료, 특수자료, 등에 대한 규칙을 우선 보완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수용해야만 국제표준화시대의 온라인목록에 부합되는 편목규칙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이상에서 AACR2와 MARC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혁신적인 갱신을 위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현재까지의 주요 문헌들을 통해서 살펴본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AACR2와 MARC는 기본적으로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카드생산을 위한 기계가독 편목포맷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온라인환경에는 잘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AACR2R의 갱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온라인목록은 편목규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한다고 주장하고, 한편 Tucker는 AACR2R에 대해서 표목부와 서지기술부에 각각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AACR2의 갱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Carpenter는 목록기술방식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불만이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3. MARC의 미래에 대해서 Weihs와 Howarth는 MARC레코드 시스템을 위해서 코딩, 레코드와 필드의 길이, 및 접근점의 선택과 형식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Attig은 MARC format과 AACR을 갱신해서 이들을 통합하여 단일체계의 AACR2-MARC를 제안했으며, Boll은 AACR2와 MARC를 갱신하여 이들을 하나의 체제로 통합해서 "AACR3"을 편찬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Gorman은 AACR2와 MARC를 획기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합해서 "HYPERMARC"를 편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갱신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실상을 토대로 하여 현행의 온라인목록의 실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KCR과 KORMARC가 온라인환경에 부합되도록 실제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온라인목록에서는 기술항목마다 맨 앞에 기술사항을 표시해주고, 사항마다 문단을 달아 하여 기술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므로 온라인목록에서는 기술사항의 문단구분이나 구두법은 서명 다음의 저자표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AACR의 초판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온라인목록에서는 청구기호를 맨 뒤에 기록하고, 기본표목은 부출표목지시사항 바로 앞에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C. 온라인목록에서는 카드목록의 경우처럼 지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지기술사항별로 별도의 독립된 문단으로 기술할 수 있고, 각각의 문단 사이의 행간도 넓게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저자의 공저서의 경우도 저자명을 서지기술사항에 모두 기술하고, 각 저자의 분담표시가 명확한 경우는 주기사항에서 저자명과 논제를 기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D. 특히 양서의 경우 종래의 카드목록에서 사용되던 ed., rev., comp., tr., ill. 등 일반적인 통용성이 거의 없는 약자들은 이제 그 사용을 금하고 완전철자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표목부에 있어서 종래에 네 사람 이상의 공저서는 주저자가 없을 경우는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했는데 온라인목록에서는 모든 저자가 검색의 접근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하는 동시에 모든 공저자에 대해서 '저자명-키워드'로 분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F. KCR3에는 아직도 표목부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술부에 있어서도 법률자료, 음악자료, 古書, 비도서자료, 특수자료, 등에 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 이들을 보완하고, 이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수용해야만 국제표준화시대의 온라인목록에 부합되는 편목규칙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 Cataloging rules in online environment

Jeong, Pil-M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n ownership and access in future library. For this purpose, this is criticized about recognition regarding future libr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ers in Korea. And, this is reviewed the present stage of collection development and a role of future books, future libraries and future librarians in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known unrealistic reality analysis and forecast surrounding future library discourse and at the same time that following Western model is not fit for future library in Korea. This study is proposed resolving of problems to access based on physical collection in future library.

---

\* Professor Emeritus, Chungang University : Chairman, Academy of Information Culture